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미국 정치에서 부통령의 의미와 여성최초 부통령에게 거는 기대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마스 제퍼슨, 해리 트루먼, 리차드 닉슨, 조 바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물론 이들은 모두 미국의 대통령들이다. 그런데 또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부통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사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부통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은 전체 49명의 대통령 가운데 15명이다. 미국 대통령 3명 중 한 명 정도가 부통령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 부통령은 차기 혹은 차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망한 자리임은 확실하다.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부통령이 탄생하면서 미국에서 여성대통령 1순위로 거명되는 인물이 바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여성대통령 문앞까지 갔다가 결국 문을 열지는 못했던 힐러리 클린턴의 못다 이룬 꿈을 카멀라가 과연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1. 미국 정치에서 부통령의 의미

미국 부통령은 그 직위에 대해서 큰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그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대통령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인식과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직위에 있는 인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직위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시각에서는 부통령 여정의 시작이 대통령선거전에서 대통령후보가 자신의 러닝메이트로서 부통령후보를 지명하는 것이라는데 기반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대통령 후보는 일반적으로 선거전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인물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러닝메이트의 실질적인 역할은

사실상 끝나고 상징적인 의미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상원의장인데 실제로 상원의장이 되어서 상원에 참여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가운데 임시상원의장을 선출하여 부통령이 상원에 참석하지 않을 때 상원을 주재하게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통령의 역할은 사실상 상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른 견해는 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상원의장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특히 상원의 의석이 공화당과 민주당에 의해서 양분되었을 때 그 의미가 크다. 지금 현재의 상원이 이렇게 민주당 50석¹⁾, 공화당 50석으로 구성되어서 상원의장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여성 최초로 미국 부통령이 된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그녀의 정체성

여성 최초로 미국의 부통령이 된 카멀라 해리스는 49번째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 그녀는 최초의 미국 여성 부통령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지만 인도계 어머니와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를 둔 이민자 가정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그녀는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에서 인도(타밀)계 어머니와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샤말라 고팔란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 인도에서 1930년대 고위 관리를 지낸 엘리트집안에서 태어났고 샤말라의 형제 모두 미국에 유학하는 등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진취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타밀 출신인 샤말라는 미국으로 유학와서 내분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캐나다 맥길대 의과대학에서 유방암을 연구하는 교수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가족은 인도에서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에 속해 있으며 카멀라의 외가쪽 친척들은 모두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는 아프리카계 자메이카인으로 미국으로 역시 유학와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카멀라의 부모는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학원 시절에 만나 시민권 운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사귀다가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한 전형적인 유학생 커플이었다. 그러나

1) 실제로는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 무소속 2석인데 무소속은 민주당과 연대를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민주당 50, 공화당 50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7살되던 해에 이혼했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녀 밑으로 여동생 마야가 있었고 둘은 어머니 슬하에서 버클리 근처의 흑인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생활하였다. 이 지역은 주변은 백인 부유층 학교와 통합교육을 하였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공개토론회에서 카멀라는 과거 인종차별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언급한 바 있다는 것과 그래서 흑백통합교육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 당시의 경험으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2세 때 그녀는 어머니가 직장을 캐나다로 옮김에 따라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워싱턴 DC의 하워드대학교에 진학하였다. 하워드대학교는 흑인 엘리트 교육의 상징과도 같은 학교로서 그녀가 대학으로 하워드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녀가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이며 하워드대에서 수학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은 강화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워드대 졸업이후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가 되어 사회에 발을 내딛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검사장을 거쳐서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 상원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였고²⁾ 2020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포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후보에 의해 러닝메이트로 지명되었다.

이러한 카멀라의 성장과정, 검사생활, 그리고 정치활동 과정을 보면 몇 가지 그녀의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첫째 그녀는 미국 주류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와 거리가 있는 비주류 성향이다. 우선 흑인과 인도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색인종이며 유색인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웃의 흑인 가족과 함께 오크랜드에 있는 흑인교회에 출석하여서 어린이 성가대에서 활동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근처의 흑인문화센터에 자주 방문하였다. 물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힌두교를 소개했고 힌두사원에도 방문했으며 여기에서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피부색이 검었기 때문에 아마도 흑인계 쪽으로 많이 분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하워드대학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흑인 엘리트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어린 시절의 흑백통합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백인사회와의 통합보다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천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그녀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이민자로서의 삶이 그녀의 삶 전체에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자라서 다시 캐나다로 이주하여 처음에는 불어권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F.A.C.E 학교로 전학하였는데 이 과정 역시 그녀에게 이방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

2) 흑인으로서의 두 번째 여성 상원이었고 남아시아계 여성으로서의 최초의 여성상원이었다.

로 보인다. 특히 아버지와 헤어진 뒤 어머니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인도계 어머니와 자신의 가족은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카말라(Kamala 타밀어로 연꽃이라는 뜻)라고 불리기를 희망하는데 이를 통해 그녀의 인도 정체성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배경은 그녀가 상원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불법체류 이주민의 시민권 부여에 관심이 많아서 DREAM법안³⁾에 적극 찬성을 보이게 하였다.

세 번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축하 연설에서 여성부통령이 자신이 최초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또한 어머니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아시절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온갖 장벽을 무너뜨린 어머니의 딸”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녀의 동생인 마야 역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수석고문을 지냈다. 이러한 주변의 영향이 그녀에게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삶도 도전의 연속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에 선출된 것도, 이어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에 선출된 것도 그녀에게는 여성으로서 큰 도전이었으며 또한 이어서 상원의원에 출마하여 최초의 남아시아계 출신 여성상원의원이 된 것 등 큰 도전이었을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 일로 인하여 친구가 그녀의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가 선거전 과정에서 그녀의 친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다⁴⁾. 이러한 경험이 그녀로 하여금 검사시절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구형을 하게 했고⁵⁾ 상원의원시절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카버노(Brett Kavanaugh) 연방법원 판사 청문회에서 그를 추궁했고 그의 성추행 논란에 관한 FBI 수사관 질문에 참여하였으며 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3. 2021년 현재의 미국 부통령의 위상

사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 부통령의 법적인 위상은 그다지 중요도가 높지 않다. 많은 정치인들은 미국의 부통령직에 대해서도 하찮게 생각해왔다. 미국의 초대부통령이었

3) The Development, Reliefs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미성년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교육 및 기타 개발, 구제하도록 하는 미 행정부의 법안.

4) https://en.wikipedia.org/wiki/Kamala_Harris 2021/3/10일 검색.

5) 페이스북을 이용한 스토키에게 4년형을 받게 했다. 후에 캘리포니아 주법무부내에 eCrime과를 설치하여서 20명의 검사들이 인터넷 기반의 범죄에 대항하게 하였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하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주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하였다.

던 존 애덤스는 부통령직을 “인간이 만든 가장 하찮은 자리”라고 폄하하였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역시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의 “내 일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일갈하였다. 이와 같이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부통령직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안배 혹은 표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러닝메이트로 임명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하여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순간 부통령의 임무는 사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나머지는 상징적인 의미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이 북동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남부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선거인단 55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텍사스(38명) 출신의 린든 존슨을 러닝 메이트로 지명하였다. 남부 아칸소 출신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북부 출신의 먼데일(미네소타 출신, 지미 카터보다 진보적)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자신의 유색인종 이미지 및 신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료있는 정치인 바이든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하원의원 6선의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신자인 마이크 펜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자신의 아웃사이더적 이미지를 희석하고 공화당 주류에 연결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 부통령 후보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통령 후보는 선거전에서 대통령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택하는 경향이 높아서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가 부통령후보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인물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일반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론을 바꾼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앨 고어 부통령이다. 그는 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대통령은 그에게 환경정책에 관한 막대한 재량권을 주었다. 그는 이 재량권을 활용하여 전세계 환경레짐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 환경분야의 중요 국가로 거듭나는데 일조하였다. 또다른 중요한 예가 딉 체니로서 부시 대통령당시의 부통령이다. 그는 특히 외교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침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딉 체니는 ‘네오콘(Neo Con)’이라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구심점으로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인사이터(Insider)인 마이크 펜스를 공화당과의 연계를 위해서 부통령으로 지명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자 트럼프는 펜스를 코로나 19 테스크 포스(TF) 책임자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코로나 전반을 챙기도록 하여 그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부통령은 과거에는 부통령이 되는 순간 실질적인 임무가 사실 끝났지만 이제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고려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부통령직의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다.

2021년부터 바이든 임기는 이러한 부통령직 중요도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있다. 우선 바이든이 사실상 상당히 고령이라는 것이다. 현재 그는 78세(1942년 11월 20일생)이다. 4년 이후 임기 마치고 만약 재선에 도전하게 된다면 82세가 된다. 이제까지 가장 고령의 대통령은 트럼프였고 그는 70세에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나이만을 놓고 볼 때 바이든의 차기는 사실상 새로운 역사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과연 그가 차기를 도전할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그가 차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는 민주당 내에서는 카멀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이다. 그래서 그녀의 부통령 임기는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도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며 주위에서도 특히 현대통령인 바이든도 그녀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그녀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서 살펴볼 것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도적으로 부통령에게는 많은 직위가 당연직으로 주어진다.

두 번째는 현재 상원이 민주당, 공화당 동수인데 마침 카멀라 부통령이 상원의장이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의원을 선출하여 모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국의 상원과 달리 하원과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에 역할을 한다.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이 되지 않는다. 특히 상원의장은 캐스팅 보트 권한이 있어서 찬성, 반대가 동수일 때 상원의장이 던지는 표가 곧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상원의장의 캐스팅 보트는 더욱 중요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미 지난 2021년 2월 5일 카멀라의 한 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녀의 캐스팅 보트는 경기 부양책 '예산 조정권'을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찬성표였다. 표결 결과는 하원 219 대 209, 상원은 51 대 50이었다. 카멀라는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단 한 표 차이로 결의안이 처리됐다.

상원의장의 캐스팅 보트는 이번을 제외하고 미국 역사에서 모두 24번이 사용되었다. 이것을 본다면 그렇게 자주 사용된 것은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13번이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 마이크 펜스에 의해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캐스팅 보트가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동수로 이루어져서 정부의 정책을 놓고 표결이 있을 경우 양당의 대결은 결국 카멀라의 한표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4. 부통령 카멀라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서의 남아있는 도전들

이제까지 부통령 후보였던 여성은 카멀라 이전에 모두 2명이 있었다. 첫 번째 여성부통령후보는 1984년 제랄린 페라로 후보였다. 페라로는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뉴욕 주 하원의원 3선을 지낸 민주당 여성정치인이었다. 당시의 대통령 후보였던 먼데일은 사실 상당히 인기있던 상대방,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하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 크게 뒤지고 있었다. 그래서 언론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가 택한 승부수가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페라로는 부통령 후보로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여성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페라로는 이미 남녀평등 입법활동에 적극 활동하고 있던 여성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녀의 성향이 선거전에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뒤쳐져 있던 선거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결국 먼데일은 레이건에게 패배하였다. 그러나 페라로의 도전으로 미국에서는 그녀를 지지하였던 여성들이 지원한 소액 정치자금 후원이 붐을 일으켰다.

두 번째의 여성부통령후보 도전은 2008년의 페일린 후보였다.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의 치열한 경쟁으로 벌어지면서 모든 선거전은 이들의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당시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는 언론의 관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성부통령후보로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명하였다. 그녀의 부통령후보 지명은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해서 여성부통령후보를 내세움으로서 여성과 여성을 대결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일린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나타났고 또 그녀의 미성년 딸의 임신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선거전에서 페일린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 번째 여성부통령후보가 부통령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이다. 그녀가 지명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2020년의 시대적 맥락이 있었다. 2020년 미국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가 5월 25일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이다. 경찰이 그를 구타하고 숨을 쉴 수 없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9분동안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흑인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들을 폭도라고 부르면서 진압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바이든은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비판하면서 흑인에게 카멀라를 부통령후보에 지명한 것이다. 카멀라가 페라로와 페일린이 가지 못한 길을 가면서 중국에 대통령에까지 이르려면 그녀의 부통령 행보가운데 이러한 인종간 평등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도전에서 헤쳐가야 할 난제는 정부가 당면한 산적한 문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회복해야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얼마나 성공하

느냐의 관건이 카멀라에게 주어져있다. 바이든의 고령으로 인해서 카멀라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카멀라가 이를 잘 해결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카멀라가 그의 정치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때 그녀는 2024년 대선에 한발짝 다가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녀는 최초의 여성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해야할 것이다. 특히 카멀라가 검사출신으로 국가 선출직 및 행정직에의 경험은 3년여의 상원의원 경험밖에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 될 수 있으며 외교분야에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그녀에게 주어진 숙제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녀의 최초 부통령 당선에 여성으로서 쏟아지는 기대와 찬사는 여기까지이다. 이제 그녀는 여성으로서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부통령으로서 특히 2021년 부통령직의 중요성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지 많은 사람들의 눈이 쏠려있다. 여성으로서의 성공이 부통령으로서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으며 그녀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지만 많은 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30%의 대통령직에 성공한 부통령의 반열에 들 수 있을지 시험대 위에 서있다.